

꽃보다 그대! 편견 그만! 무대에선 주인공! 장벽을 넘어 자활로 바로 선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신과 다를 땐 망설임 없이 틀렸다고 말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다.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장애인의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권혜숙 강사
“편견 가졌던 게 부끄럽고
내가 더 배우네요”

권혜숙 플로리스트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화훼장식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에게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함께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죠.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 제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화훼장식을 가르치는 건 전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다니깐요.” 권 교수는 지적장애인에게 플로리스트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먼저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꽃을 만지고 향기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감과 감성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던 분들이 이전 술선수범해서 청소하고 웃으며 포옹도 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 화훼장식도 수준 높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플로리스트 육성 프로그램

인천 우리들의집, 지적장애인들 교육
집중력 뛰어나 기능대회서 입상도

온 사방이 꽃 천지다. 계절의 시작인 봄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고귀한 생명 앞에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꽃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곳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우리들의집(원장 노혜원)’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여성 지적장애인들이 플로리스트로 육성하는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인천 부평에 있는 우리들의집을 찾아갔다. 지적장애인 4명이 플로리스트 권혜숙 강사의 지도에 따라 오아시스에 꽃을 꽂고 있었다. “경은씨, 꽃을 아 빠그룹과 엄마그룹을 나눠서 꽂아야 해요. 자 이렇게 나눠서 꽂는 거예요.” 권 강사가 시범을 보이자 꽃을 꽂고 리본을 묶고 장식을 하는 과정이 어려워 보이는데도 능숙한 솜씨로 작품을 만들었다.

‘꿈을 만드는 플로리스트 여성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갖게 됐다는 지적장애 2급인 최희진(48)씨는 인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부문 동메달리스트다. 문관숙 우리들의집 복지사는 “희진씨는 첫 수업부터 꽃이 싫다며 수업을 거부했던 분인데 꽃을 다듬고 자신의 노력으로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갖게 됐다”며 “삶의 의욕 없이 살던 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업을 갖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희진씨는 지난해 인천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13명의 지적장애인과 겨뤘을 수상했다. 이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한 지적장애인이라 인지능력은 비장애인인과 동일하다.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순위 안에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복지사의 설명이다.



문관숙 복지사는 “대회 수행과제로 나온 재료가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것이 아닌데도 당황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다”며 “심사위원들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희진씨 작품을 보고 연회식 장식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든 화훼장식 작품들은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봉사자들에게 선물한다. 1년에 한번 전시회를 열어 화훼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하고, 인천나눔대축제 행사 때 찾아가는 화훼체험교실을 열어 시민들에게 직접 꽃꽂이를 가르치고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3년 차인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지적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대와의 전쟁’ 사업

학대받는 장애인들 적극 발굴
보상받게 하고 정신적 치료 도와

지적장애 3급인 김명수(가명·41)씨는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며 딸기 재배와 포장, 딸기 밭을 지키는 경비까지 농장 일을 도맡아 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두 끼만 먹으면서 365일 일했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공동모금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진행하는 ‘학대와의 전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례다.



그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도움으로 치과치료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상담과 드라마치료 등으로 불안과 위축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다. 또한 장애인권법센터의 법률 지원으로 5,0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아냈다. 집이 없던 김씨를 위기주거홈(쉼터)에 입소시켜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 또한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음식 재료를 검수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과 자립지원금을 보태 영등포에 작은 방도 얻었다. 이제 김씨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장애인 학대 실태 파악 및 학대 피해자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경기도·경상북도·전라남도 거주 재가 장애인 1,627명의 학대 실태를 조사해 학대 의심 사례 83건을 발굴했다. 또한 학대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해 273명의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321명의 장애인 전담 경찰관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으며,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술지원인도 양성했다.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학대받는 장애인이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립 후에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라고 전했다.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무기력했던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14년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과 함께 찾아간 곳이 바로 신안군이었다. 현장은 참담했다. “노동력 착취 사건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죠.”

자옥과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 학대받는 장애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출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학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학대와의 전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바뀌고 무기력했던 장애인이 꿈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0일 KBS1·3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서로 똑같이 대하면 모두가 행복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전국 240만여 명의 초등학교생이 동시에 시청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특집 방송 <대한민국 1교시>가 KBS 한국방송 1·3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KBS와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소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봉주도 출연

올해는 ‘우리별을 지켜라’라는 애니메이션을 방송한다. 장애를 가졌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섯 명의 학생들이 과물왕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에 빠진 지구별’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똑같이 대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봉주, 개그맨 이수지, 동계패럴림픽 한국 최초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등이 출연해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한다.

<대한민국 1교시>는 당일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KBS한국방송 1·3라디오, 온에어 방송, KBS콩(KONG) 설치 후 청취하면 된다. 또한 KBS3라디오, 국립특수교육원, 손오공의 특수교육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다.

‘같이 걸을까?’ 주제로 전국 백일장도

또한 제20회 전국 초·중·고 백일장도 진행한다. 초등학교생은 <대한민국 1교시> 방송을 청취한 후 방송 소감문을 쓰거나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시나 산문, 독후감을 응모하면 된다. 중·고등학교생은 동일한 주제로 산문, 방송소감문, 웹툰, 드라마 소재 부문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4월 16~30일까지며, 접수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백일장 담당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3 405호)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02-784-9727).



발달장애인 햇살인형극단

성폭력 피해자들, 목소리로 연기
공연 때마다 수입도 생겨 성취감

성인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학대의 유형은 성폭력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음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꿈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성폭력 및 유괴 예방 인형극 공연을 하는 '햇살인형극단'이다.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수진(가명·30)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겪은 뒤 극도의 불안 증세와 2차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다.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는 삼성전자의 후원과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햇살인형극단' 인형극에 한씨를 참여시켰다.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아이들에게 성폭력의 문제점을 알리고 어린이 유괴와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인형극 공연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한씨는 극단 활동을 하면서 공연 예술가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공연 수입으로 자립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민정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갖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지 못했다"며 "지금은 좋아하는 카페 라테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 매일 웃고 다닌다"고 했다.

햇살인형극단은 현재 발달장애인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을 위해 햇살인형극단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MBC 아나운서들의 재능기부로 인형극에 맞는 목소리를 녹음해 공연 시 녹음된 음성에 맞춰 인형을 움직이며 연기를 한다. 올해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동과 분해·조립이 간편한 새로운 무대로 교체해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공연을 하는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장애인시설 등이며 연 20회 진행된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앞은 못 봐도 판소리·악기 연주
지난해 국내에서만 116차례 공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악기 연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 예술인도 비장애인 예술인과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장애인전통예술단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1년 창단돼 연 평균 60회 이상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뛰어난 예술성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궁중악사로 채용하는 '관현맹인(管絃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연수단원인 김지연씨(오른쪽)

盲人)' 제도의 맥을 잇는 전문 예술단이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복지정책인 관현맹인 제도의 우수한 전통을 되살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고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연수단원인 김지연(21)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빛을 전혀 볼 수 없다. 6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점자책 《서편제》를 읽고 여주인공 송화처럼 소리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판소리를 시작해 2년 만에 수원대학교 국악과에 합격했다. 판소리는 창(소리) 과정뿐 아니라 '너름새' '발림'이라 불리는 동작도 익혀야 한다. 비장애인도 어렵다는 이 과정이 앞 못 보는 김지연씨에게겐 득음 과정보다 더 어려웠다. 희로애락을 표정과 몸짓으로 연기한다는 건 커다란 벽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없이 연습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장애인예술대회 국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예술인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지연씨는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에게 판소리로 위로해 주고 싶다"고 했다.



평창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출신이다.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 신의현 휠체어농구로 시작해서 스키 대표로 노력과 지원이 빛은 '황금빛 세상'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 신의현(38) 선수. 그의 금메달이 값진 이유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좌절을 극복하고 일궈낸 인간 승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7일 열린 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작식 부문 7.5k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터에 나간 느낌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렸다"고 했다.

충남 공주 출생인 신의현 선수는 2006년 2월 대학 졸업식 전날 당한 교통사고로 나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 너무나 큰 사고라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 선수는 방향하며 슬로 살았다. 3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음 문을 열고 살던 신 선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2009년 10월 우연히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주장 윤정문 선수를 만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 윤정문 선수의 제안으로 시작한 휠체어 농구는 신 선수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들이 소속된 아산휠스파워농구단은 삼성전자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정기탁사업으로 지체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의현 선수는 휠체어



농구를 하면서 2012년엔 아이스 슬레이지하키, 2014년엔 휠체어사이클에 도전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지인의 권유로 스키를 타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스파워농구단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농구선수로 육성해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2016년 세계휠체어농구선수 Best 5에 들었던 오동석 선수와 실업팀으로 이적한 임동주 선수가 이곳을 거쳐 간 대표적인 선수다.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들은 후배 선수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현재 13명의 선수들이 제2의 신의현 선수가 되기 위해 코트를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관현맹인진통예술단은 지난 한 해 국내에서만 94회 공연을 했다. 전국 맹학교 13개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 70여 개 초·중·고를 찾아 다니며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연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3일 오후 7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특별공연을 한다. 또한 7월 12일 국립국악원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도 갖는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현지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동화책 제작·벽화그리기

발달장애청소년 특유의 감성 살려
소통하는 법 배우고 자존감도 높여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기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무쌍함이 있다. 그래도 부모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청소년들은 기약이 없다.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다.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협동심을 높여 자존감을 찾는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BNK금융그룹과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벽화세상의 보물찾기’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동네 벽화 그리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지역 소통 프로젝트다.

화명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복지관에 모여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글도 쓰고 삽화도 직접 그려 동화책을 만든다. 또한 마을공작소에서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동아리처럼 모여 동네 지도를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해근(가명·17) 군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어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땐 발표도 하지 않고 친구들 뒤에 가려 있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부터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발표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화장실 갈 때 먼저 가서 도와주고, 간식 나누는 것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다. 이제는 또래 아이들의 든든한 형 역할을 할 정도로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

하은미 화명종합복지관 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협동을 배우고 있다”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모두가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포토뉴스
사진 이신영



찾아기는 장애인사물놀이팀 ‘땀띠’

신명 나는 연주... “헹! 최고예요”

“이 악기 신기하게 생겼죠. 아프리카에서 온 ‘칼림바’라고 해요. 누가 한번 연주해 볼래요?”
“저요! 저요!”

지난 3월 22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장애인사물놀이 ‘땀띠’의 송경근 음악감독과 함께 재미있는 음악 수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악기를 신기한 듯 만져보며 즐거워했다. 이어 김수진 음악치료사가 아이들과 함께 음악 워크숍을 했다. 나무로 된 리듬스틱을 두드리며 박자에 맞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옆 사람 이름을 부르는 음악놀이이다. 어려운 박자가 나오자 박자를 놓치는 아이들이 나왔다.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땀띠’의 공연은 예술 공연의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에게 장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땀띠 단원들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캐릭터가 4명의 땀띠 단원들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명 나는 땀띠의 사물놀이 공연에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다. 장애인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프로급 연주 실력이었다. 공연을 관람하던 한 아이는 “장애인 형들도 저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라며 공연 소감을 말했다.